

## '98년 새해를 맞이하여 ...

**戊寅** 年 새해를 맞이하여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과 방산업계 임직원, 그리고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월간 〈國防과 技術〉이 창간 19돌을 맞게 되어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이를 자축하면서 편집 관계자와 그동안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출발을 다짐해야 할 새해 벽두에 우리경제는 'IMF 구제금융'의 충격과 파장으로 국민 모두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우리 업계로서는 오늘의 총체적 위기상황에 침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확실한 안보상황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지연되었던 김정일의 최고권력직 승계가 이루어지고 새로 들어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남북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겠지만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과 군비증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美·中·日·露의 주도권 싸움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일본은 자위대의 재무장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 또한 군의 현대화와 군비증강으로 그들의 패권주의를 노골화 하는 등 인접국인 우리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 모두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새롭게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국민적 성원과 정부와 방산업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자주국방의 튼튼한 보루가 되었던 우리 방산업계는 그동안 정부 조변물량의 감소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방산 전용시설의 유휴화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해에는 IMF가 정부의 재정축소와 함께 방위비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韓國防衛産業振興會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새해 사업목표를 “방산 가동률 향상 및 방산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에 두고 업계의 활동지원과 21세기를 대비한 방산정책 개발, 그리고 외국과의 방산기술 협력과 방산수출 증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업계,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의 방위산업은 새로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韓國防衛産業振興會의 발전과 월간 〈國防과 技術〉의 발행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1998年 1月 韓國防衛産業振興會 會長 柳 纘 佑

柳纘佑

